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첫 공판

‘뇌물수수 혐의’... “현금, 여행사로부터 할인받아 돌려받은 것” 혐의 부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제2호법정 형사1단 독 심리로 열린 송 의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송 의장의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

은 여행사로부터 할인받아 돌려받은 것”이라며 “1천 유로는 인솔 가이드가 오지 않아 공동경비 명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장과 여행사 대표는 친분에 의해 돈을 준 것으로 직무 관계의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덧붙였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장은 여행사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여행 당일 1000유로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당시 송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8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은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의 다음 공판은 9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제39기 고급리더양성반 35명이 16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학습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방문했다.

서노송예술촌 우수사례 견학 발길 줄이어

올 상반기에만 타 지자체·의회 등 총 35건 310명 다녀가
지방자치인력개발원 39기 고급리더양성반 현장시청 찾아

섬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 마을로 바꾸고 있는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도시재생사업을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서노송예술촌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이곳을 찾은 단체가 6월 말 기준으로 총 35건 310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51건 520명이 다녀갔다.

주요방문대상은 타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섬매매집결지 관련부서, 의회, 여성관련 단체,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대학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제39기 고급리더양성반 35명도 이날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학습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에서 사업계획과 추진과정, 도시재생사업 후 변화상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예술가 책방 ‘물결서사’와 선미촌 걷기 등을

통해 변화된 선미촌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시가 선미촌 내 거점공간을 매입해 추진해온 선미촌의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현재,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매입 건물 1호점에 시티가든이 완성되고 2호점에는 올 하반기 문화예술복합공간 건축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또, 3호점 새활용센터 리모델링과 5호점 서노송리빙랩은 각각 8월과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4호점에서는 예술가책방 ‘물결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선미촌이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벤치마킹하는 타 시·군 및 관련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사업 및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6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놓인 시민 대상 긴급지원

전주사랑-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공동추진 협약

전주시복지재단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6일 이와같은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모금 사업에 양 기관은 △희망1004 기부 릴레이 △월 1만원 정기후원하는 '삼삼한 찰린지' △동네상점과 기업이 참여하는 '나눔이웃 나눔가게' 사업 등 전주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된 재원은 향후 전주시민이 추진하게 될 △긴급복지지원체계 마련 △동네복지활동가 양성 △복

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형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을 설립했다.

전주사랑은 지난 4월에는 노송동 천사마을 기부천사센터에서 김동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재단의 첫 공식 보고회인 '희망1004기부 릴레이' 발대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희망1004기부 릴레이'는 1004명의 전주시민이 10년간 1004만원의 기부를 약속,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는 릴레이 운동이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전주시 복지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위원을 조성해 전수형 긴급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전주시복지재단과의 연합모금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동참할 것인하는 시민들은 전주시복지재단(063-281-2754)으로 문의하면 기부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TYF 월드문화캠프' 2주차 일정 18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서

국제청소년연합(IYF)이 주최하는 '2019 IYF월드문화캠프'가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캠프는 매일 아침 포크댄스로 막을 열고 마인드강연과 명사초청강연을 비롯해 래프팅, 미니올림픽, 외국인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캠프에는 60개국 4000여 명의 대학생과 청소년부 장관, 대학교 총장, 경찰청장,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IYF의 모토를 바탕으로 도전하고 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부대 행사로는 20여 개국에서 40여 명의 경찰청장·교정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경찰청장&교정본부장 포럼'이 16일 개최되며 대학생 '리더스컨퍼런스'도 이어진다.

'2019 IYF월드문화캠프' 2주차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대구 육상진흥센터 '그라시아스 콘서트'와 인천시 남동체육관 폐막식을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한다.

/송효철 기자

'빛 안갯바위'

금품 훔친 30대 검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건물에서 노트북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퇴근하고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급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진열된 화분 상습 절도

60대 불구속 입건

진열된 화분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제 시내 모 매장 앞에 진열된 50만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0점을 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휴가철 여성 상대 범죄·빈집털이 '꼼짝마라'

전북경찰, 내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예방활동

전북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여성 상대 범죄와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용 형사 인력을 운용해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단속 기간 동안 여성 운영 편의점·식당 등 여성 대상 강력 범죄,

휴가철 빈집 및 금은방 현금다액취급업소 털이, 농수산물 절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휴양지 해수욕장, 계곡 등의 파서지 주변 차량털이와 소매치기, 영세상인(노점상),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갈취·영양분해를 일삼는 폭력 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폭력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 활동

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이번 여름철 형사활동 강화 기간에 가능한 전 형사역량을 집중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예수병원 핵의학과, 검체검사 실시기관 재인증

예수병원 핵의학과가 대한핵의학회로부터 핵의학 검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핵의학 검체검사실 인증은 2017년부터 시행된 인증검사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성적에 따라 인증기간에 차이가 있다.

예수병원 핵의학과 검체검사실은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같은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 7월 1일부터 2년 기간의 인증을 획득했다.

핵의학과 김민우 과장은 "예수병원 핵의학과는 검체검사실 정도관리 교육 및 검체검사실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재인증으로 예수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핵의학과 검체검사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검체검사실 인증 제도는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검사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



증 방법은 전문의 자격 및 역할, 검사 인력, 검사실의 검사방법, 시약, 정도관리물질, 기기 및 기구, 검체취급, 결과보고, 내부와 외부 정도 관리 등을 점검하고 별도의 심사 기준을 통해 학회 정도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김영태 기자

완산구,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 방지망 설치

서곡교·홍산교 등 2곳에

교량하부에 서식하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곡교와 홍산교 등 2개 교량에 비둘기 서식 방지망이 설치된다.

전주천과 삼천 등의 하천을 산책하거나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교량 하부에 서식하는 비둘기의 배설물 및 깃털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완산구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운동시설이 밀집된 서곡교와 홍산교 등 2개 교량에 비둘기 서식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향후 완산교와 효자다리 등 2개 교량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6년 짜전다리를 시작으로 다가교와 사평교, 마전교에 비둘기 서식 방지망을 설치한 바 있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이번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 방지망 설치 대상교량은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조치로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이나 교량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 및 운동기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